

5000년 역사가 빚어낸 소중한 우리 보물을 만나다

문화재에 대해 혹은 예술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린다. 청나라 사람들이 1년 월급을 주고도 갖고 싶었던 조선의 그림이 있었다고 한다. 무엇일까? 답은 정선의 산수화다. 또 하나 질문. 모나리자의 미소에 비견되며 전 세계가 갖고 싶어하는 불상은? 바로 금동반가사유상이다.



천상의 컬렉션

KBS 천상의 컬렉션 제작팀 지음



됐다. KBS 천상의 컬렉션 제작팀이 펴낸 '천상의 컬렉션'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국 예술 걸작 25점이 수록돼 있다. 책은 교양프로 '천상의 컬렉션'이 바탕이 됐다.

사실 문화재는 당대의 '명품'이다. 최첨단의 미학의 정수뿐 아니라 역사성까지 담겨 있어 가치를 환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책의 출발은 "우리 문화재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자"는 모토에서 비롯됐다. 컬렉션 제작팀들은 예술품 경매를 정착한 소더비 경매를 모티브로 '화려한 명품 런칭쇼처럼 초대형 비디오편을 이용해 문화재를 소개'한 것이다.

"예술은 역사보다 상상에 관대하다. 문화재는 역사적 사료이기 이전에 하나의 예

백자달항아리·금동반가사유상·안견 몽유도원도 등 회화·공예·도자·조각·전적 등 5개분야 우리 문화재 중 반드시 알아야 할 예술 걸작 25점 엄선

술품이며, 예술품은 감상자의 자유로운 해석을 허락한다. 순백의 백자대호를 바라보며 누구든 자신만의 해석을 더할 수 있다. 모두가 백자대호를 보며 달을 떠올릴 필요는 없다. 예술품의 가치에 열린 시각으로 접근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스토리텔러, 즉 이야기를 전달할 호스트의 해석이었다."

책은 회화, 공예, 도자, 조각, 전적 등 모두 다섯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각각은 '꿈보다 영롱한 예술',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믿을 수 없다', '전 세계가 탐내는 보물', '수많은 장인들의 혼이 들어있다', '문자로 만들어진 예술'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소개된 문화재는 이름만 들어도 감탄사가 나올 법하다. 실제하지만 만날 수 없는 전설의 그림-안견의 '몽유도원도', 거장의 위대한 시작-정선의 '신묘년 풍악도첩', 새로운 시대를 연 조선의 마지막 대화원-장승업의 '붉은 매화와 흰 매화 열 폭 병풍'부터 진흙 속에서 건져 올린 '일백 개의 얼굴'-'금동대향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소리-'성덕대왕신종' 등이 등장한다.



백자 흑화 파도 꽃무늬 긴목 병

또한 650년 동안 잠든 보물섬을 깨우다- '신안 해저 유물', 달을 품은 향아리, 전 세계를 매혹시키다-'백제 향아리', 한국을 대표하는 오묘한 미소-'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도 수록돼 있다. 제작팀들은 "다른 재화들은 시간이 지나



김홍도 파안홍취 '세계풍속도' 중

면 가치가 떨어지지만 예술품은 오히려 시간이 더해질수록 가치가 오른다. 그런 것을 박물관에만 모셔 두고 '역사의 부산물'로만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아깝지 않은가'라고 반문한다. <인플루엔셜-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문익환 지음 '두 손바닥은 따뜻하다'

민중화와 통일운동의 상징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시집이 발간됐다. 그동안의 시집과 산문이나 잡지에서 발표한 시들 가운데 작품 70편을 묶어 '두 손바닥은 따뜻하다'가 출간된 것.

강팔십이 펴낸 시집은 작금의 한반도에 찾아온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를 만끽하며 반갑고 따뜻하다. 알려진 대로 문익환은 1989년 남북, '4.2 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3대에 걸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 헌신한 문 목사네 가족사는 곧 우리나라 근대사이자 현대사이고 민족운동의 축소판이다.

시집에는 문익환 목사의 시인으로서의 면모와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들이 담겨 있다. 또한 소박한 언어로 구체적으로 노래한 통일시, 종교인으로서 느끼는 사회와 민중에 대한 고뇌 등 그의 삶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작품도 만날 수 있다.

1부는 시인으로서 면모가 돋보이는 시들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비롯해 개인적 삶의 편린을 담았다. 2부와 3부는 각각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한 아픔, 통일에 대한 열망을 바라는 시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4부에서는 종교인의 고뇌가 담긴 시들을 감상할 수 있다.

문학평론가인 임현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일흔여섯 생애 중에 여섯 차례에 걸쳐 11년 2개월을 옥중에 보냈던 우리 민족의 겸허한 심부름꾼. 그는 우리 시대의 어른이자, 한반도라는 광야를 떠돌던 예언자며, 아등고거친 파도 넘실대는 동서남 3해의 민족사의 등대이고, 설움 많은 민중의 동무"라고 평했다.

<시계열-1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남주 지음 '그녀 이름은'

화제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조남주 작가가 신작 소설집 '그녀 이름은'을 펴냈다. 전작 작품에서 다하지 못한 수많은 그녀들의 이야기가 보다 다채롭고 당당하게 펼쳐진다.

28편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집에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그녀, 엄마의 간호를 도맡아 된 그녀, 열정페이로 강요받는 비정규직 그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그녀까지... 이들 여성들은 2018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름없는 주인공들이다.

소설은 작가가 60여 명의 그녀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소설로 형상화한 것으로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누구보다 용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다. 28편의 이야기는 모두 네 개의 장으로 묶였다.

부조리한 노동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때로는 가족까지 부양해야 하는 2030 여성들, 결혼이라는 제도 중심과 언저리에서 고민하는 여성들, 제 이름도 잊은 채 가사와 양육 노동에 지친 여성들이 등장한다.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위계를 이용한 강압적인 신체 접촉, 불쾌한 농담, 외모와 옷차림에 대한 지적, 추행과 희롱, 폭력을 견뎌야 하는 고통이 있다.

'그녀 이름은'의 문을 여는 소설 '두번째 사람'은 상사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미투라는 마지막 방법을 택한 공기업 직원 '소진'의 투쟁기다. 그러나 이전에 비슷한 선택을 했던 이들이 신상털이와 음해와 맞고소에 맞서 힘든 싸움을 벌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닫는다. 그러나 "이것은 지든 이 싸움을 마무리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소진은 단단한 여성들의 연대감을 온몸으로 증명한다.

<다산책방-1만4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라파엘 산타드루 지음, 홍선영 옮김 '나를 비참하게...'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최근 전 세계 156개국을 대상으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2018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국민행복지수 1위는 핀란드, 2위는 노르웨이, 3위는 우리나라였다. 우리나라는 57위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반가운 이슈들이 여럿 생기고, 첨단기술이 계속 쏟아져 나왔지만, 여전히 행복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 기술"은 이렇게 일상을 그저 바쁘게만 살며 두려움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에 빠져 허덕이는 수많은 현대인의 피폐해진 정신과 마음을 위한 책이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고, 그때마다 온갖 좋지 않은 생각과 감정을 얻는다. 이 책에서는 그런 순간을 평생 '2만 가지 이상' 만날 수도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마음속에서 이런 고통들을 무조건 참아내며 살 수 있는 것이다.

심리학과 교수이자 인지심리치료학자인 저자 라파엘 산타드루는 매년 수백 명의 환자와 직접 심리 상담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이 일상에서 주로 느끼는 감정적 어려움과 고정관념, 미신, 비합리적 신념 등을 꾸준히 연구해왔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변화하려는 태도가 부정적 감정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말하는 개인의 마음가짐에서의 변화를 통한 승리 경험은 실제 사례로 만나 볼 수 있다. 이런 사례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일이나 인간관계,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 얼굴 붉히기 쉬운 상황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

<생각의 날개-1만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 시공문의 **H.010-9229-3530**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삼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